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왕상3:9-13)

다윗왕은 아들인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대상22:12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자식이 자신보다 더 잘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소망대로 아들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습니다.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상3:4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왕상3: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이 예전 성경책(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왕이 해야 할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상3:12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니 이 지혜를 얻고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에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방문합니다. 당시 강국인 에디오피아 여왕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온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 수 백km나 되는 먼 곳까지 찾아옵니까?

먼 곳 까지 찾아와서 지혜로운 자 앞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왕상10:10 이에 그가 금 일백이십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지혜를 얻으니 풍성함이 따라옵니다.

왕상10:24-25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도 지혜를 추구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헬라(그리스)사람들은 머리에 지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철학은 Philosophy(필로소피)입니다. Philo(사랑) + sophy(지혜) : 지혜에 대한 사랑

그러나 그 철학을 공부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지혜는 두뇌 회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진정으로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이 많이 소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왕상4:29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소유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주십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하고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나라의 크기나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땅도 작고 인구도 적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왕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니 태평성대를 누리고 최고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가 왔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 크기는 작고 남북분단 상황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지혜 주셔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서 기도창고에 우리의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도 양과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가 얼마나 되었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예루살렘교회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분열의 조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을 때 예루살렘교회는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사역을 서로 분담하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쓴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본질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과 코로나19에도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갈고닦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열심히 심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국가를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 -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	선천적 < 후천적	공부와 배움	인식이나 이해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	선천적 > 후천적	분별력	실제적 능력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지식도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가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식의 양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이 쌓이고 반복되면 원리가 되고 그 원리가 지혜를 만들어 냅니다.
지혜와 지식을 겸비해야 합니다. 지혜 속에 지식이 담겨있고 지식이 있을 때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대하1:10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대하1:11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예수님을 굳세게 믿는 자에게도 주십니다.

골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시대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4:6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큰 나라 사람은 땅이 크다고 큰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땅이 적어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있다면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믿음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외관적으로는 건물이 큰 교회요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진짜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를 소유한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아무리 적은 수가 모이는 작은 교회라도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다면 그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나라의 비전을 성취할 왕을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열국 앞에 자랑스러운 큰 나라로 성장할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나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영광, 내가 미워하는 자들의 멸망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하1:12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약1:5 너희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7: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위기를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얻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